

추석예배모범

추석예배모범

찬송
기도
말씀

찬송가 589장(통 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같이
가족중에서

요한복음 4장 35절~38절

³⁵너희는 너희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³⁶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³⁷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³⁸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설교

가족중에서

우리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봄, 뜨거운 태양의 열정 넘치는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바로 지금 우리 모든 가족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 누구라도 주님을 믿으려 한다면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 누구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사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농사지어서 만든 것들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농사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추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대로 공급해주시는 진정한 농부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해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봅시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3. 더 많은 사랑의 결실을 거두십시오.

우리 가족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 서로를 위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더욱 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정에서부터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올 한해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나누어 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합심기도

다같이

찬송

찬송가 559장(통 30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